‘기연’이 작용하여 발심출가 정진하니 ‘법연’이 숭고하네

㉕ 중생심이 멈춘 곳 강릉 보현사

백두대간의 유장한 산맥이 굽이쳐 흐르는 대관령. 영동으로 넘어가는 관문으로서의 대관령은 큰 고개로만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쪽으로 내리뻗는 산맥의 기상은 동해의 푸른 물을 배경으로 웅혼하기만 합니다. 보현산은 대관령에서 동쪽 면으로 자리하여 아름드리 소나무와 각종 관엽수로 단장한 웅숭깊은 산입니다. 만월산이라고도 불리는데 동해에서 솟아 오른 달빛이 산을 가득 채우는 풍경이 그려지는 이름입니다.

보현사의 원래 이름은 지장사(地藏寺)였고 지장사의 중심은 지장선원이었습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지장사는 보현산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절 이름이 보현사이고 그 중심인 선원은 그대로 지장선원입니다. 선원도 오래 빈 터로만 남아 있다가 최근에 중창되었습니다. 산과 절은 둘이 아닙니다. 산 이름이 절 이름으로 변하는 동안 산은 그대로 산이었습니다. 절의 이름이 바뀐다고 하여 절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이름이 산 일 수 없고 이름이 절일 수 없을 뿐입니다.

솔향기와 푸른 바람의 속살을 헤치고 들어가는 보현사 가는 길은 보현보살의 품 일 것만 같습니다. 그 아늑한 공간에 서 있으면 푸른 이끼를 덮은 고목도 나의 몸이 되고 겨울바람에 온 몸을 맡겨버린 바위너설도 내 몸이 됩니다. 새로 단장된 지장선원 마당에서 이곳에 처음으로 도량을 연 낭원(郎圓)대사를 생각해 봅니다.

낭원 대사 오진탑비.

낭원대사는 신라 흥덕왕 8년(834)에 태어나 고려 태조 13년(930)에 입적한 고승입니다. 사굴산문의 개창조 범일국사의 제자인데 그의 시대는 나라가 바뀌는 혼란기였습니다. 그가 활동한 강릉지방은 그 당시 신라의 멸망과 고려의 건국 사이에 교집합처럼 끼어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고려가 건국되고 호족세력을 흡입시키는 과정에 복속된 땅이기 때문입니다.

시절이 혼란한 때에는 소인배와 무뢰배가 횡행하기도 하지만 덕이 높은 스승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또 인륜이 피폐할 때도 높은 가르침이 드러나 사람 사는 세상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법입니다. 혼곤한 민초들에게 한 그릇의 따뜻한 국과 밥 같은 선지식이 절실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절이 바로 범일국사와 낭원대사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보현사 사역의 중간에 낭원대사의 탑비 오진탑비(悟眞塔碑 보물 제192호)가 있고 삼성각 뒤쪽으로 100m 가량을 걸러 올라 간 곳에 낭원대사 부도(보물 제191호)가 있습니다. 먼저 탑비를 어루만져 봅니다.

절의 당우들이 석축 위 너른 터에 지어져 있는데 비해 오진탑비는 석축 아래에 서 있습니다. 때문에 석축 위에서 비를 감상하면 이수의 현란하고 씩씩한 문양들을 찬찬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주위에 놓인 여의주를 향해 네 마리의 용이 다투는 헌걸찬 모습은 탑비의 조형미와 격조를 무척이나 높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낭원대사가 입적하고 난 뒤 10년 째 되는 해(고려 태조 23년, 940)에 세운 오진탑비에 비문을 쓴 사람은 구족달(仇足達)로 고려 초기 태조의 신임을 얻었던 학자의 필명인 것 같습니다. 비문에는 낭원대사의 행적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낭원대사는 신라 사람으로 훌륭한 가문에서 출생했습니다. 낭원대사의 어머니는 신승(神僧)이 금으로 된 도장을 주는 꿈을 꾸고 잉태하여 대사를 낳았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철이 들어 학문에 힘썼고 어느 날 스스로 출가를 결심합니다. 부모님께 출가 의사를 밝히자 부모는 범상치 않던 꿈을 되새기며 출가를 허락합니다.

세간을 떠나는 출가는 모름지기 발심출가여야 합니다. 스스로 지대한 발심을 하여 생사의 옷을 바꿔 입을 각오로 첫 발을 내디뎌야 수행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가도 다생의 기연이 없으면 이뤄지지 않습니다.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다는 옛말은 숙세의 기연이 작용하지 않으면 불법문중에 들어오기가 어려움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낭원대사가 출가하는 대목을 비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때에 큰 뜻을 품고 소천(所天, 아버지)에게 여쭈어 입산수도를 하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간청하였더니, 대답하되 “전일(前日) 태몽을 생각하니 완연히 맞는 일이다” 하면서 사랑하지만 마지못해 허락하고, 그의 뜻을 막지 않았다. 그리하여 책 보따리를 짊어지고 집을 떠나 절을 찾았다.

보현사 부도 밭. 한 어린이가 스케치를 하고 있다.

오진탑비 축대 아래 있어 이수 감상하기 편해
신라 말 고려 초 혼란기 중생들에게 따뜻한 귀의처로 존경받아
화려함과 웅장함 절제한 부도에서 ‘가풍’ 보여

출가를 향한 간절한 뜻을 품고 부모님께 허락을 받는 청년의 모습과 끝내 사랑하는 아들을 산문으로 보내야 하는 부모의 마음, 그리고 등에 책을 짊어지고 ‘큰 공부’를 위해 집을 떠나는 아들의 모습 등이 애잔한 영상으로 떠오릅니다.

지리산 화엄사를 본사로 출가한 대사는 진주의 엄천사 등 남쪽지역의 절들을 찾아다니며 구법에 매진하고 계를 받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해의 금산으로 들어가 ‘화엄의 일음교(一音敎)를 읽고 금강삼매를 성취’ 합니다. 그의 정진은 100일 동안의 단식과 3년간 솔잎만 먹는 치열함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이 간절하면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니 부처님의 수행이력에서도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보입니다.

지리산 권역에서 정진하던 낭원 대사가 북쪽 끝 강릉으로 와 법석의 당간을 세운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즉, 남쪽의 낭원 대사가 북쪽의 범일국사에게 입실하여 제자가 된 계기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문을 읽어 봅니다.

부지런히 참선하던 중 홀연히 어떤 노인이 나타났다. 쳐다보고 있는 동안 갑자기 선객으로 변하였는데, 그는 선풍도골로서 찬란함이 마치 옥광(玉光)을 발하는 듯, 흰 서리를 드리운 듯하였다. 대사에게 이르되 “스님은 마땅히 이 길의 끝까지 가되 먼저 굴령(堀嶺)을 찾아 가십시오. 거기에는 시대를 탄 대사이며 세속을 벗어난 신인(神人)이 계시니, 능가보월의 마음을 깨달았고 인도제천의 종성(宗性)을 모두 통달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대사는 그 길로 불원천리하고 오대산에 이르러 통효(通曉 범일국사)대사를 친견하였다. 대사가 말씀하시되 “어찌 그리 늦었는가. 오랫동안 너를 기다렸다” 하면서 곧 입실을 허락하였다.

스승과 제자의 인연은 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통하는 사람끼리는 멀고 가까움도 이르고 늦음도 관계가 없나 봅니다. 범일국사의 문하에 들어 간 낭원 대사는 스승의 맥을 이어 제방에서 찾아오는 운수들을 영접했습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중국의 마조와 서당지장에 비유했습니다. 서당지장으로부터 선종의 법맥이 한반도로 들어와 구산선문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으니 보현사 지장선원은 바로 서당지장의 법맥이 정통으로 이어져 온 사굴산문의 자존심일 수도 있겠습니다.

낭원 대사의 부도가 있는 산 중턱은 아늑합니다. 올라가는 오솔길에서 만났던 매운 겨울바람이 부도 앞에는 없습니다. 부도는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뭔가 단단함이 느껴집니다. 불필요한 장식을 생략하는 마음은 이미 필요한 것이 뭔가를 잘 아는 지혜로 채워져 있습니다. 화려함을 추구하되 복잡하지 않게 하는 마음, 장엄함을 강조하되 최대한으로 절제하는 마음은 바로 도의 경계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낭원 대사 부도.

낭원 대사의 부도가 그러한 가르침을 줍니다. 팔각의 지대석에 덤덤하게 연꽃을 표현하고 역시 팔각의 몸돌에 문비만 슬쩍 표시해 둔 무심한 솜씨가 낭원대사의 치열한 구도역적을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는 최대한의 절제로 읽히는 것입니다.

보현사 입구에 자리하는 부도밭에 들어섭니다. 20여 기의 석종들이 엇비슷한 키로 서 있습니다. 몸돌에는 이름들이 새겨져 있지만 주인의 생애는 전하지 않습니다. 이끼가 곱게 덮은 석종들을 자세히 보면 윗부분이 서로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색의 옷을 입고 한 절에서 밥을 먹고 한 법당에서 예불하고 정진하면서 사는 수행자들이지만 각자의 성품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개성이 수행자로서 살아가는 면모임을 말하고자 부도들도 제각기 모양을 달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줄로 늘어선 부도 사이에 1m가 조금 안 되는 높이의 돌절구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곡식을 빻던 절구인지 입적한 스님의 유해를 빻던 절구인지 알 길이 없는 것은 그 절구가 부도밭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절구라도 공양간 근처에 있다면 당연히 곡식을 빻던 것이라 여길 텐데 하필 부도밭 가운데 놓여 있으니 그 용도가 사뭇 궁금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심인 줄 알면서.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佛 불광승복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스님들의 불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복 주문하시면 사찰로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1)가사불사
(2)장삼불사
(3)승복일체
(4)손 누 비
(5)모시께끼
(6)수 련 복
(7)소품일체
[향,모자,가방 등]
저렴한 가격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191-29 103호 한빛아크빌
02)383-3681 / 010-3879-3681 윤병대 합장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